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33주년, 그리고 서거 78주기를 맞아
선생님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일제강점기에 근대사를 열어간 선각자이자 민족의
지도자이셨습니다.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항일 운동에 모든
것을 바치신 선생님의 발자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시며 젊은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셨고, 3·1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 48인으로 학생들과
종교계의 참여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사장, 주필, 고문 등을 역임하시고, 우리 민족의 실력
양성을 위한 계몽 활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경제자립운동도 적극
전개하셨습니다.

광복 후에는 혼란한 정국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의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